

## 미 증시, 강한 경제성장에 달려 강세 보이며 하락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달러 ↑, 증시 ↓

•미 증시는 엇갈린 기업 실적과 경제 데이터를 소화하며 낙폭을 축소한 채 하락 마감. 이 날 미 증시는 달러인덱스의 방향성에 좀 더 예민한 모습을 보임.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 약해지고 ECB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에 임박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강세 모습을 보여. 그러나 장중 이란 외무장관이 하마스가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자, 달러 강세 폭 둔화되며 시장은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대형기술주의 부진과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키워. 반면 미 국제 수익률은 견조한 채권 수요 영향으로 하락. (다우 -0.76%, 나스닥 -1.76%, S&P500 -1.18%, 러셀2000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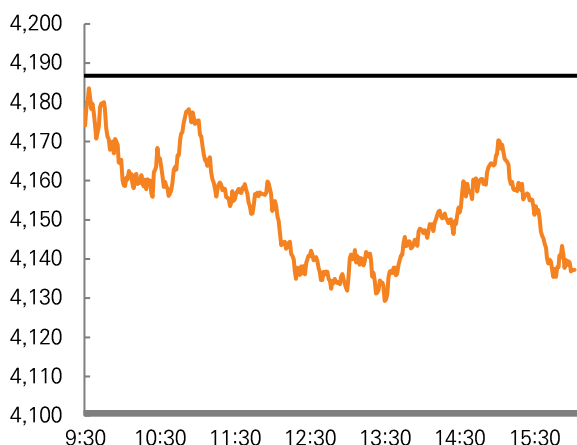
### 특징 종목: 시총 상위 부진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시가총액 비중이 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58%), IT(-2.17%) 및 경기소비재(-1.56%)가 약세를 보이며 전체 증시 하락을 견인. 반면 부동산(+2.15%), 유틸리티(+0.86%), 소재(+0.72%)는 상승. 우선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3.73%)는 4분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공개하자 하락.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피어그roup인 알파벳(-2.55%)의 주가에도 영향을 줬. 반면 퍼스티시티즌스(+8.67%)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예금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강세. 이는 다른 중소 및 지역은행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글뱅크프(+13.35%), 홈스트리트(+8.01%), CVB파이낸셜(+7.28%) 등이 상승하며 S&P 지역은행 ETF(KRE)는 3% 가까이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매력적인 밸류

•MSCI 한국 지수 ETF는 2.16%,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1.4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7% 상승. KOSPI는 0.3~0.6%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최근 거듭되는 하락으로 국내 증시에서 우호적인 면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 그럼에도 긍정적이라면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value)'는 매력적.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9.94배는 지난 10년 평균 10.3배를 하회하고, PBR 0.8배는 팬데믹을 제외하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 지금은 시간과 가격을 분할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299.08	-2.71	상해종합	2,988.30	+0.48
KOSDAQ	743.85	-3.50	홍콩항생	17,044.61	-0.24
DOW	32,784.30	-0.76	인도센섹스	63,148.15	-1.41
NASDAQ	12,595.61	-1.76	유로스톡스 50	4,049.40	-0.59
S&P 500	4,137.23	-1.18	영국	7,354.57	-0.81
캐나다	18,875.31	-0.38	독일	14,731.05	-1.08
일본	30,601.78	-2.14	프랑스	6,888.96	-0.38


 변화 요인

## ① GDP ② 52%

미 증시는 엇갈린 기업 실적과 경제 데이터를 소화하며 낙폭을 축소한 채 하락 마감. 이 날 미 증시는 달러인덱스의 방향성에 좀 더 예민한 모습을 보임.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 약해지고 ECB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에 임박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강세 모습을 보여. 그러나 장중 이란 외무장관이 하마스가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자, 달러 강세 폭 둔화되며 시장은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대형기술주의 부진과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키워. 반면 미 국채 수익률은 견조한 채권 수요 영향으로 하락.

### # 美 3분기 GDP 성장률: 'H4L(Higher for Longer)' 재확인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강했던 미국의 3분기 GDP 성장을 통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짐. 미국의 3분기 GDP는 4.9%<sup>\*전분기 대비 연율화</sup>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4.5%)과 전분기(2.1%) 수치를 크게 상회하며 2021년 4분기(7.0%)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을 기록.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 역시 소비(성장 기여도:2.7%p)로 전체 성장의 약 55%를 차지. 이는 계절적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1분기(2.54%p)와 2분기(0.55%p)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 특히 상품(1.1%p)과 서비스(1.6%p)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 가계의 수요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조했음을 나타내.

이외 기업들의 재고투자가 증가하며 1.3%p 성장에 기여를 하였고, 주거용 투자는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 기여(0.15%p)를 기록. 다만 수입(-0.75%p)이 급감하며 순수출(-0.08%p)이 마이너스(-) 성장 기여를 하였고, 기업의 재고투자는 증가하였지만 장비지출(-0.19%p)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강력한 3분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역풍'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 백악관 경제자문인 라엘 브레이너드는 "소비자와 기업은 신용 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실제 3분기 강력한 GDP 성장으로 인해 연준의 'H4L(Higher for Longer)' 긴축 통화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셈. 당장 다음 주 있을 FOMC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추세이하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속 언급했던 만큼 보수적이면서 매파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52%: 매그니피센트 7 ↓, 쓸림 완화 후 확산 중요

최근 증시 상황에서 느끼는 한 가지는 "믿은 만큼 배신감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선 S&P 500 지수는 주요 기술적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4,235p)과 직전 저점, 그리고 심리적 마디지수인 4,200p를 하회한 이후 낙폭을 더욱 확대하는 모습 보여. 여기에는 올해 주가 상승을 견인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쳐. 실제 이들 기업들의 연초이후 상승률은 지난 7월 중순 66.8%에서 전일 47.8%까지 19%p나 하락하며, 같은 기간 주요 지수 하락폭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 특히 주요 하락 국면(8월 중순, 9월 말)에서 주요 지지선이 되어줬던 상승률 52% 레벨이 금일 무너진 점은 추후 변동성 확대의 여지를 남겨. 결국 향후 증시의 Key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들 기업의 쓸림이 완화됨과 동시에 다른 기업 또는 산업으로 확산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시총 상위 업종 부진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시가총액 비중이 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58%), IT(-2.17%) 및 경기소비재(-1.56%)가 약세를 보이며 전체 증시 하락을 견인. 반면 부동산(+2.15%), 유틸리티(+0.86%), 소재(+0.72%)는 상승. 우선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플랫폼스(-3.73%)는 4분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가이드언스를 공개하자 하락.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피어그룹인 알파벳(-2.55%)의 주가에도 영향을 줘. 마스터카드(-5.62%)는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월 지출 추세가 둔화되었다고 발표한 후 하락. 할리 데이비슨(-6.45%)은 지난 분기 출하량이 20% 감소하며 전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발표. 마텔(-7.61%)과 해스브로(-11.65%)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과 가이드언스 하향 조정으로 큰 폭 하락 기록. 또한 UPS(-5.93%)는 전 세계 배송 수요 둔화로 인해 3분기 매출이 감소하였고 향후 매출 전망도 하향 조정. 웨스턴디지털(-9.29%)은 키옥시아와의 M&A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약세. 얼라인(-24.88%) 역시 분기 실적 미스와 가이드언스 하향으로 급락.

반면 퍼스티시티즌스(+8.67%)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예금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강세. 이는 다른 중소 및 지역은행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글뱅크프(+13.35%), 홈스트리트(+8.01%), CVB파이낸셜(+7.28%) 등이 상승하며 S&P 지역은행 ETF(KRE)는 3% 가까이 상승. 아메리칸타워(+8.11%)와 서비스나우(+3.92%)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강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달러 ↑, 美 천연가스 ↑

달러화는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 약해지고 ECB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에 임박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자 유로화 대비 강세 모습을 보여. 그러나 장중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완화가 강세 폭을 축소. 반면 국채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급등에 따른 경계성 물량과 7년물 국채 입찰 호조 영향으로 보여.

한편 미국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재고 감소와 탄탄한 수요 전망으로 전일대비 8% 가까이 상승해 MMBtu당 3.2달러를 상회.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주 시장 예상(800억 bcf)보다 적은 740억 bcf의 가스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혀. 여기에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미국 남부 48개 주(州)의 날씨가 예상보다 추워,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분할(f.시간, 가격)

MSCI 한국 지수 ETF는 2.16%,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1.4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7% 상승. KOSPI는 0.3~0.6%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최근 거듭되는 하락으로 국내 증시에서 우호적인 면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고점대비 각각 14%, 22% 하락해 있는 상황. 이는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부진한 축에 속해.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은 3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 미수급 잔고도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긍정적이라면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value)’는 매력적.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9.94배는 지난 10년 평균 10.3배를 하회하고, PBR 0.8배는 팬데믹을 제외하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 지금은 시간과 가격을 분할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



## 국채금리 ↓, 국채ETF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46	대형 가치주 ETF (IVE)	-0.80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31
소매업체 ETF (XLY)	-1.56	소형 가치주 ETF (IWN)	+0.69
온라인소매 ETF (EBIZ)	-1.13	대형 성장주 ETF (VUG)	-1.96
미국 인프라 ETF (PAVE)	+0.39	중형 성장주 ETF (IWP)	-0.71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1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85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94	미국 국채 ETF (IEF)	+0.76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01	하이일드 ETF (JNK)	+0.32
바이오섹터 ETF (IBB)	-0.05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1.45	물가연동채 ETF (TIP)	+0.54
반도체 ETF (SMH)	-0.8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06.09	+2.15	-0.17	-3.26
유틸리티	303.77	+0.86	+2.02	-2.41
소재	472.11	+0.72	-1.67	-3.74
금융	532.03	-0.37	-2.25	-4.03
산업재	822.99	-0.44	-2.48	-3.46
필수소비재	713.48	-0.63	-0.01	-2.67
에너지	663.88	-0.80	-5.61	-3.89
헬스케어	1,459.17	-0.98	-2.59	-3.56
경기소비재	1,163.81	-1.56	-4.34	-6.89
IT	2,837.05	-2.17	-3.89	-1.14
커뮤니케이션	212.77	-2.58	-7.45	-3.33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3.21	-2.07	-5.38	Dollar Index	106.643	+0.11	+0.37
브렌트유	87.93	-1.91	-4.30	EUR/USD	1.0561	-0.05	-0.20
천연가스	3.21	+8.01	+9.94	USD/JPY	150.39	+0.11	+0.39
금	1,997.40	+0.03	+0.75	GBP/USD	1.2128	+0.13	-0.13
은	22.91	-0.31	-0.42	USD/CHF	0.8992	+0.27	+0.88
알루미늄	2,192.25	-1.21	+0.33	AUD/USD	0.6321	+0.19	-0.13
전기동	7,985.50	-0.58	-0.09	USD/CAD	1.3832	+0.25	+0.82
아연	2,431.75	-1.95	+0.71	USD/RUB	93.6727	+0.29	-3.21
옥수수	479.25	-0.05	-5.00	USD/BRL	4.9877	-0.16	-1.53
밀	579.50	+2.11	-2.27	USD/CNH	7.3243	-0.08	-0.17
대두	1,300.25	-0.69	-2.42	USD/KRW	1,360.00	+0.76	+0.19
커피	161.20	-0.68	-1.68	USD/KRW NDF1M	1,351.42	+0.05	-0.2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845	-11.04	-14.53	스페인	3.969	-3.30	-6.90
한국	4.400	+11.30	+4.00	포르투갈	3.581	-4.70	-6.50
일본	0.875	+1.60	+3.50	그리스	4.202	-7.90	-21.10
독일	2.861	-2.80	-7.00	이탈리아	4.870	-4.50	-7.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